

예금은 적금과 다르게 한 번에 목돈을 저축해놓는 것이다.

만일 1,000만원의 돈이 있는데 1년짜리 예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 돈을 한 번에 은행에 넣어두고 1년 만기에 이자를 받아 가는 심플한 구조이다.

## [이자계산]

연 2% 예금으로 계산해보자.

적금 예	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	
예치금액	10,000,000 원	
	1,000만원	
예금기간	년 개월 1년	연이자율 단리 월복리 2%
이자과세	<b>일반과세</b> 비과세 세금우대	
	원금합계	10,000,000 원
	세전이자	200,000 원
	이자과세(15.4%)	- 30,800 원
	세후 수령액	10,169,200 원

원금 1,000만원에 대한 연 이자 2%를 하면 20만원이 나오고 이자 소득세 15.4%를 떼서 총 10,169,200원을 받는다.

한마디로 1년간 은행한테 내 돈을 빌려주고 1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이렇게 한번에 목돈을 넣어두는 방식을 '거치식'이라고 부른다.

은행의 예. 적금 상품들의 이자는 기본적으로 '연 이자'로 표시한다.

연 3%면 1년간 저축해둔 돈은 3%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. 그럼 6개월만 저축했다면? 1년의 반이니까 이자도 반으로 줄어서 <math>1.5%다.

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 방식이다. 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.

그리고 이자는 보통 적금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높다.